

통일염원 외면하는 문교정책

국민학교 2학년인 딸아이가 후감 쓰기 대회가 있으니 <비산의 전투>를 사달라고 했다. 장선생님 이름으로 보내온 가 통신문에서도 역시 같은 책을 전하며 학부형들의 협조를 당하였다. 독후감 쓰는 법도 지할 겸 책을 사서 아이와 함께 읽고 "이것이 국민학생 교재 바람직한 일인가?"싶을 정도로 섬뜩하였다. 책 내용은 김익·홍재근이라는 두 이등병이 괴군을 물리쳐 비학산이라는 곳을 점령한다는 것이다. 책에 나오는 북한을 지칭한 용어는 '북괴' 일색임은 물론 어린들이 보기에는 곤란한 내용이 있다. "그래 저 표적판이 바로 안당놈들이구나. 머리통을 박아야지." "오직 저 머리통을 잘낸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총알은 분명 머리통 한가운데 지났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눈이 뿌듯했습니다." (23쪽) 북괴군을 모조리 잡아 없애야 한다. "북괴군을 섬멸하러 갑시다. 북괴군의 유격대를 쫓아내서 우리 때려 잡으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38쪽)

7.14
국교생 독후감 쓰기예
호전성 주입 북한을 불구대천 원수
비학산 전투 추천 표현

"만약 반항하면 칼로 허벅지를 한 번 찔러라." (81쪽)
"북괴군의 목에다 총을 들이댔읍니다." (105쪽)
"(소 제목) 저 군관놈은 내 것이다." (111쪽)
군관놈을 덮치면서 허벅지에 칼날을 꽂았읍니다. "옥, 옥..." (129쪽)
북괴군 졸병 한 놈을 찌르고 등등, 극악한 표현과 원한과 복수의 일념만 나타나 있었다.
분별 없는 영웅심에 불타는 호전적인 성격의 두 주인공을 나라를 위하는 최상의 표본으로 치켜세우는 점, 또 북한을 전쟁으로 때려부수어야 할 불구대천의 원수로 생각하도록 하는 섬뜩한 날말들은 통일을 지향하는 국가 시책과는 너무도 어긋나는 것은 아닐까? 국민 대다수가 염원하는 통일을 향한 열의에 대해 국가정책 따로 문교정책 따로 나아갈 수는 없다고 본다.

이러한 책이야말로 학교에서 장려할 것이 아니라 '판매금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었다.

박 순 득

<송파구 잠실본동 234-14>

해외동포 북한방문 신고제로

외무장관 신변안전위해 남북협약의 제의

정부는 19일 외국 영주권을 가진 해외동포와 이에 준하는 사람에 한해 신고제로 북한방문을 허용한다고 발표하고 방문 동포의 신변안전을 위해 남북한 관계당국이 협의할 것을 제의했다.

최광수 외무장관은 19일 오후 노태우 대통령의 7·7선언 제1항 "해외동포들이 자유로이 남북을 왕래하도록 문호를 개

방한다"는 데 대한 후속조치로 △해외에 생활근거를 둔 외국 영주권 소지자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의 경우 영주권에 준하는 장기체류 허가를 얻은 우리나라 거주여권 소지자에게 북한 방문을 허용하며 △북한을 포함하여 공산권에 거주하는 동포의 자유로운 한국 방문을 보장한다고 발표했다.